

[새봄 기충 탐방]

76세 사장할머니와 40년 전통 맛집



자신의 두 손으로 일떠세운 식당에서 40년째 '개근생'으로 일하고 있는 최순애 사장할머니

사평역에 내려 광장 앞 오른쪽 천교 가를 따라 동쪽 방향으로 500미터 쫓 가다 보면 바로 길옆에 조선족 전통 건축양식으로 외관을 보기 좋게 장식 하고 '천지식당'이라고 쓴 조선어 간 판과 함께 1985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는 글구가 한눈에 안겨온다. 사평시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족 식당, 4년도 버티기 어렵다는 요즘 료식업종에서 장장 40년 동안이나 악착같이 견 지하면서 일개 무명 음식점으로부터 당지에서 소문난 전통 맛집으로 거듭 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자신의 두 손으로 이 식당을 일떠세우고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개근 생'으로 일 밖에 모르면서 한생을 살아 온 76세 최순애 사장할머니가 들려 주는 이야기를 통해 그 속에 숨은 비 결을 알아본다.

"저의 고향은 구태의 음마하입니다. 22살이 되던 해에 교하 상가촌이라는 조선족 마을의 일꾼식구가 사는 황 씨 가문의 딸며느리로 시집을 갔지요. 당시 사평에 살고 있던 친척이 우리 집에 왔다가 사평 시내에 조선족 음식점이 없으니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는가고 한마디를 해온 게 이 식당을 열게 된 계기가 됐지요. 생활형편이 어려울 때라 한창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면 좀더 잘살아볼까 오매불망 생각하던 중 그런 말을 듣고 겁도 없이 이 바닥에 뛰어든 거지요."

1985년 시골에서 20년 동안 땅을 두지던 최순애는 두 아이를 시부모에게 맡기고 남편과 함께 사평시로 왔다.

"모든 것을 남편과 단둘이 했지요. 역전 부근이라 손님들이 한밤중에도 찾아왔는데 새벽 3, 4시가 돼서야 문을 닫는 일이 보통이었어요. 눈도 제대로 못 불고요 또 새날 장사를 시작

해야 했지요. 그래도 돈이 들어오는 재미에 크게 힘든 줄을 모르고 일했지요. 한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10년 가까이 주방에서 혼자 해매며 일했습니다."

최순애 부부는 힘을 합쳐 10년 동안 악착같이 벌여 모은 돈으로 근처에 150평방미터 되는 영업집을 사서 규모를 확장하고 제집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음식맛과 식당 주인의 대쪽같이 바른 상업 도덕이 주변에 널리 알려지면서 식당을 찾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졌으며 여름 한철에는 뽕면을 먹으려고 줄을 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그렇게 고객들이 줄을 잇자 자신의 영업집을 남에게 세주고 400여평방미터 되는 지금의 이 자리로 이사와서 오늘날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

천지식당은 사평시의 소비자가 시름놓고 소비할 수 있는 시범음식점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식당을 운영해 오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으니 바로 '내가 집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식재료를 구입하고 또 직접 장만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다가 품질이 나빠 안된다고 거절하자 "당신네 식당이 뭐가 그대 대단해서, 당신들이 사지 않아야 다른 식당에서 얼마든지 가져간다."라고 장사군한테 편잔을 들은 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고객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잔머리를 굴리거나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은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최순애 사장할머니는 이는 식당을 하는 업주들이 지켜야 할 도덕으로서 최저선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가을에도 그는 자기 두 손으로 직접 팔천근이나 되는 무우를 사

다가 썰어서 무우말랭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해마다 오백근 넘는 메주를 써서 된장을 손수 담그기도 한다. 된장을 담그고 다른 식재료를 보관하기 위해 시내에 50평방미터 되는 집을 특별히 세맡기도 했더니 음식 재료에 쏟는 그의 지극한 정성은 알고도 남음이 있다.

"내가 한창 젊었을 때 시아버지는 나를 보고 남을 퍼주기가 좋아하고 해퍼서 평생 돈을 못 번다고 웃으면서 말썹했지요. 지금 돌이켜보니 돈은 그나마 좀 벌였는데 해픈 성격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최순애 사장할머니는 배품과 배려심이 몸에 배인 사람이다. 아들이 중학교를 다닐 때 부모를 잃은 한반 학생이 어렵게 보내는 것을 알고는 아침저녁으로 불러서 아들과 같이 밥을 먹도록 하고 그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자 오천원을 손에 쥐여주면서 힘든 시간은 꼭 지나갈 것이니 학업을 견지하라고 당부했다. 사회에 나와 남방에서 사업하는 아들의 친구는 제일 힘들었을 때 도움의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었던 조선족 어머니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서 지금도 사흘이 멀다하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있다고 한다.

식당 종업원들이 어려울 때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일, 조선족로인협회에서 활동이 있을 때 떡이며 순대 같은 음식을 보내주던 일, 심지어 외지에서 병 보이라 사평에 왔다가 밥 먹으러

식당에 온 일면부지의 사람에게 돈을 꿔준 일... 식당에서 십년째 일하고 있는 장려는 "말도 마세요. 최사장은 돈이 없다며 공짜로 먹으려고 들어오는 '고객'에게도 료리를 주문하게 해서는 따뜻한 국과 함께 대접하는 아주 특별한 분이랍니다. 또 한번은 돈이 없는 '고객'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 돈을 팔아가며려관까지 들도록 한 적도 있었어요."라고 감탄해 말했다.

식당 종업원들의 얘기가 나오자 최순애 사장할머니는 "직원들은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에게 힘들고 더러운 일을 시키지 않고 내가 나서서 하듯이 나는 언제나 직원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들이 이곳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천지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현재 10명이며 모두 오래된 직원들로서 근무년한이 제일 짧은 종업원도 이곳에서 일한 지 4년 된다. 일자리 변동이 제일 많은 료식업종에서 이는 실로 흔치 않은 일이다. 류연파는 20대 젊은 나이에 천지식당에 들어와서 장장 30년을 최순애와 함께 일하다가 60살이 다되어 심수에 있는 아들 집에 가서 뒤바라지를 해줘야 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식당을 떠나야 했다.

"한 식당에서 30년 동안이나 일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는 같이 한해 두해 일해가면서 정이 깊어졌지요." 류연파가 떠난 후 최순애는 저녁 퇴근 후 집에서 그녀 생각을 하면서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곤 했다. 식당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장려는 료녕에서 왔다. 그는 "이곳에서 일하면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최사장은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고 챙겨주며 우리는 전혀 압박감이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환경에서 편한 마음으로 일하니 설령 료임을 좀더 주는 곳이 있다 해도 모두들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요."라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곳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원인을 밝혔다.

착하고 배려심 깊은 마음,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만드는 음식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직원을 단지 고용과 피고용의 료동관계가 아닌 가족처럼 대하는 태도, 자신에게는 '객정'이지만 남에게는 '혜관' 인정... 40년을 지켜온 천지식당의 성공 뒤에는 76세 최순애 사장할머니의 심혈이 구석구석에 숨배여있다.

/리철수 유경봉
오건 기자



북경시, 2026년까지 스마트공장 디지털작업장 100개 신설



천정통풍구, 스마트 조명 등 에너지 절약 기술이 적용된 북경벤츠자동차 생산작업장.

북경시가 향후 3년간 새로운 스마트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북경시경제정보화국은 최근 <북경시 제조업 디지털화 전환 실시방안(2024—2026년)>을 통해 제조업 기업의 디지털화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2026년까지 100개의 스마트공장 디지털작업장을 신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오미 스마트공장에서는 1초에 1대씩 만들어지는 스마트폰, 주문에서 최종 납품까지 생산라인의 핵심 설비련 동률 100%인 스위스 엔지니어링 기업 ABB의 북경 공장... 스마트 제조가 북경 제조업 발전의 새로운 '명함'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경시경제정보화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북경시는 '뉴스마트 100' 프로젝트를 실시해 생산액 100억원 이상의 스마트공장 10곳을 건설하고 스마트공장 디지털작업장 103

곳을 육성했다. 스마트공장 디지털작업장 핵심공정 장비의 디지털 제어률은 88.12%, 생산설비 네트워크율은 79.55%에 달했다. 또 제품 불량률과 단위생산 에너지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다.

북경시의 스마트공장은 꾸준히 늘고 있다. 방안의 목표에 따르면 2026년까지 북경시는 규모 이상 제조업 기업의 디지털화를 이루는 한편 중점산업 분야의 핵심공정 디지털 제어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디지털화 전환 우수 공급품을 100종 이상 육성하고 시급 이상 공업인터넷 플랫폼을 20개 키울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급 스마트 제조 벤치마킹기업, 시범공장 혹은 '글로벌 등대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디지털작업장 100곳을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 신화넷

통화시 기업들 1분기부터 생산에 만전



통화건설과학기술회사의 생산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한창 인도네시아로 보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일년지계는 봄에 있다." 새해가 시작되자 통화시 각 기업들이 전력을 다하여 생산과 사용호들의 주문 제품 발송을 서두르며 올해 첫시작부터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통화건설과학기술회사 생산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은 한창 생산라인에서 최선을 다해 인도네시아로 보낼 황산니켈 생산을 서두르고 있다.

"정월 9일에 일을 재개한 후 노동자들은 야근을 하면서 주문 제품 생산에 투입되어 현재 사천과 인도네시아로 보낼 황산니켈 생산을 다치고 있다. 새해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첫출발을 할 것이다." 통화건설과학기술회사 기계가공직장 책임자 등해파는 신심에 차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급 '전정특신'(专精特新) 작은 거인 기업인 통화건설과학기술회사는 주로 합금 추출 니켈, 코발트, 망간, 크롬 등 신소재 장비의 제조 및 자동차 제어시스템 개발, 설치 등을 통합하는 EPC 전문화 서비스에 종사하는 하이테크 기업으로서 국가특허 46건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의 업무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스트랄리아, 유럽 등 나라와 지역을 포괄하며 기술 및 시장 점유율은 국제적으로 앞장을 달리고 있다. 2024년 기업은 핵심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 분야를 심화하며 국제시장을 확대하여 고품질 발전 경쟁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생산작업장에서 기계가 굉음을 내며 조립 라인을 돌리고 있다. 통화강원 바이오과학기술유한회사는 음력설 연휴를 쇠고 생산을 재개한 이후 건강식품 작업장과 살균처리제품 작업장에서 진도를 내가며 주문 제품 생산을 서두르고 있다. 통화강원바이오과학기술유한회사 영업부 담당 립동욱은 "현재 회사의 주문과 매출은 모두 호황이며 건강식품, 살균처리 제품, 항바이러스, 항인플루엔자 제품 생산과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통화강원바이오과학기술유한회사는 기업개구리 제품을 심층가공하는 기업으로서 설립된 지 12년, 그동안 이미 40개의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등록된 상표는 90개 이상에 달한다. 회사는 생물과학기술 연구개발, 산학융합과 공업화를 통합한 생산형 기업으로 발전했으며 선후로 국가고신기술기업, 길림성 '전정특신'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우리 기업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대보건의건강산업의 발전 추세를 주시하면서 기업개구리를 큰 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립동욱은 이렇게 말했다. 올해 통화시 기업들은 1분기부터 분발된 정신으로 국내외 각지의 주문을 쟁취하고 생산을 안정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 길림일보

스마트화 향해 달려가는 우리 나라 전통산업

철강, 장비 등 기존 전통 제조업의 복잡한 생산공정이 디지털과 스마트 기술에 힘입어 산업의 스마트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산업기술을 통해 기업에 '스마트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중국공정원 원사이며 동북대학 부교장인 당립신은 "구조·데이터, 음성·텍스트, 이미지·비디오 등 산업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융합 및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마치 컴퓨터단층촬영과 마찬가지로 '스캔' 결과에 따라 '치방'이 나오면 기업은 맞춤형 개선 방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품질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립신은 철강산업과 장비제조업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동북지역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철강, 장비제조 순환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실

제로 그는 지난해 기계, 항공 등 료녕성 장비제조업체를 방문해 교류, 연구, 토론과 협력을 진행했다.

미래공장에 대해 그는 정보화, 스마트화, 자동화를 통합할 공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로보트가 생산공정의 연결 단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운반 및 자재 공급 측면에서 로보트가 한층 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는 창조와 디자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사람이 지식을 축적하는 수단도 중대한 변화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인간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고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당립신은 산업 스마트 분야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학생의 설계 능력, 전략능력, 계획능력을 키우는 것은 교육자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신화넷

고속철 건설자들, 1분기 좋은 첫출발 위해 전력



새봄을 맞아 길림성 각지는 대강건설에 팔을 걷고 나섰다. 심양으로부터 무순, 통화, 백산시를 거쳐 장백산에 이르는 심백고속철도 대강건설 길림구간에서 500여명의 건설자들이 올해 1분기 좋은 첫출발을 위하여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사진은 노동자들이 터널 내부의 방수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길림일보